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6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단열재 원료 생산지기들
봄날 즐거운 건강 나들이

한국바스프 동호회

“건강하고 즐거운 질주를 펼치겠다.”
한국바스프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3·1 전국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건강 질주의 첫 발을 내딛는다.
한국바스프는 독일계 글로벌 화학그룹으로 3·1마라톤에는 폴리우레탄 등 단열재 원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공장 식구들이 함께 한다.
사내 10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라톤 동호회에는 75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건강을 다지고 있다. “건강”을 우선으로 생

각하는 회원들은 마라톤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실력을 가능해보고 있다.
건강을 위한 즐거운 마라톤을 지지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이번 대회는 시즌 첫 대회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10년 건강 질주 첫 발

매년 6회 정도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회원들은 올해는 3·1 마라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마라톤 코스도 훌륭하고 나들이를 겸해 외출을 하기에 적당한 거리라 광주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회원들은 회사에서 차량 지원을 받아 봄날의 즐거운 건강나들이

에 나서게 된다.
새해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회원들은 조만간 여수 경기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몸상태도 점검하고, 대회에 대비한 몸 만들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26명의 회원이 10km에 도전장을 냈다. 품코스에 도전하는 회원도 있다. 동호회에서 ‘에너지저’로 소문난 이상호 씨가 42.195km를 달리게 된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소문난 이 씨는 마라톤은 물론 철인 3종에도 도전할 만큼 지지 않는 열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원도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동호회



3·1 전국마라톤대회에서 한국바스프 사내 마라톤 동호회 회원 26명이 건강한 달리기에 도전한다.

여수공장 회원들 10km 도전

전 회장 이수영 씨는 3·1 마라톤에서 정점을 찍은 회원들과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춰 예정이.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일근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깜짝 실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김 씨는 “1등은 하지 못하지만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반환점을 돌 때 느껴지

는 몸 속의 활기가 좋아서 달리는 매력에 빠져 지내고 있다”며 “즐겁게 달리다 보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로의 나들이를 통해 회원들은 건강한 2010년을 만들어가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일 오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축구대표팀과 목포시청의 연습경기에서 대표팀 이규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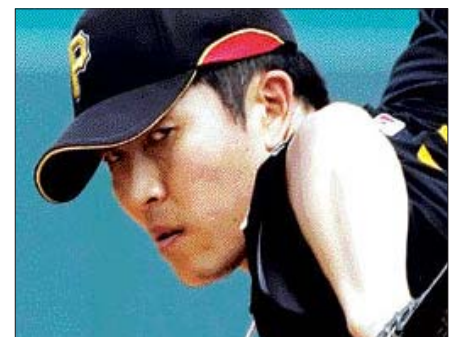
앗! 발등뼈

염기훈 연습경기서 부상

공격수 염기훈(27·울산)이 연습경기 중 발등뼈에 이상을 호소해 본인은 물론 축구 대표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동아시아축구연맹선수권대회를 앞둔 대표팀의 염기훈은 2일 오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45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된 실업팀 목포시청과 연습경기에서 1피리어드에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경기 중 왼쪽 발등뼈에 이상을 느껴 40분 만에 김두현(수원)과 교체돼 나왔다.
염기훈은 이후 바로 목포시내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허정무 감독은 경기 후 “염기훈은 과거 피로골절로 고생했는데 발을 딛는 순간 느낌이 안 좋았다고 해서 병원으로 보냈다. 본인 스스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팀 관계자는 “MRI 촬영 자료를 지난해 염기훈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보내 정확한 진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염기훈은 전북 현대에서 울산으로 이적이 결정된 2007년 7월 아시안컵 일본과 3·4위전에서 오른쪽 발등뼈를 다쳐 석 달여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다. /연합뉴스

‘풍운아’ 김병현 빅리그 재도전

SF와 마이너 계약
3년만에 복귀 준비



‘풍운아’ 김병현(31)이 3년 만에 미국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기회를 잡았다.
AP통신은 2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김병현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고 이날 중순 열릴 스프링캠프에 초청선수로 참가한다고 짧게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얼마 전 박찬호(37)에게도 마이너리그 계약을 타진했던 팀이다.
이로써 지난 2008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다가 중도에 쫓겨난 뒤 빅리그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병현은 2007 시즌 후 3년 만에 빅리그에 복귀할 찬스를 맞았다.
김병현의 에이전트인 폴 코비네는 이날 스포츠전문 채널 ESPN과 인터뷰에서 “김병현이 한동안 잠정 은퇴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김병현은 지난 2년간 국내에서 주로 몸을 재충전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가 빅리그 재진출을 향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99년 애리조나에서 데뷔한 김병현은 2001년 5승6패 19세이브를 올리며 애리조나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듬해 36세이브를

올렸고 2003년 보스턴으로 이적해 2년을 뛰었다.
이후 콜로라도(2005~2007년)로 이적했던 김병현은 2007년 트레이드로 플로리다 유니폼을 입었고 플로리다에서 방출됐다가 다시 애리조나로 잠시 복귀했다.
그러다 애리조나에서 19일 만에 다시 자유계약선수로 풀리는 등 순탄치 않은 생활을 겪었고 2008년 2월 피츠버그와 최대 200만달러에 사인했지만 시범경기에서 부진한 내용을 남기고 또 방출됐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보기 드문 오른손 잡수할 투수인 김병현은 마무리 투수로 뛰다 2006년부터 선발로 전환했다. 9년간 빅리그에서 올린 성적은 54승60패, 86세이브, 평균자책점은 4.42다.
김병현은 선발로 통산 87경기에 등판, 25승35패를 거뒀지만 평균자책점이 5.03으로 저조했던 반면 구원으로는 29승25패 평균자책점 3.53으로 상대적으로 좋았다.
9이닝당 탈삼진도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인 10.5개를 기록, 스프링캠프에서 살아남는다면 불펜으로 뛸 공간이 크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목포시청에 두골 먹었다

목포전훈 연습경기서 수비 불안 노출
김보경 해트트릭 힘입어 5대 2 진삼승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둔 축구대표팀이 실업축구 목포시청을 상대로 몸을 풀었다.
대표팀은 2일 오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목포시청과 연습경기에서 공격수 이근호(이와타)와 염기훈(울산)의 연속골에 이어 청소년대표 출신 미드필더 김보경(오이타)이 해트트릭을 기록해 5-2로 이겼다.
45분씩 3피리어드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소집 멤버 22명의 선수 중 전날 허벅지 타박상을 입은 중앙수비수 김형일(포항)을 제외하고 21명을 두루 기용하며 컨디션과 경기력을 점검했다.
1피리어드는 K-리그와 일본 J-리그 소속 선수로 구성된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최종 엔트리 중 베스트 전력이라 할 만한 멤버들이

나섰다.
4-4-2 포메이션에서 이동국(전북)과 이근호가 투톱으로 나섰고 좌·우 미드필더에 염기훈과 노병준(포항), 중앙 미드필더에 김정우(광주)와 구자철(제주)이 배치됐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이정수(가시마)-조용형(제주)-곽태휘(교토)-오범석(울산)으로 꾸러졌고, 골문은 만형 이운재(수원)가 지켰다.
대표팀은 16분 구자철의 크로스에 이은 이근호의 헤딩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23분에는 이동국이 내준 공을 염기훈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원발로 차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대표팀은 28분 목포시청 조우진의 코너킥 때 배동현에게 헤딩골을 내줬다.
대표팀은 이후 수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2-1로 1피리어드를 마쳤다.

2피리어드에서는 김보경이 왼쪽 미드필더로 투입됐다. 중앙 미드필더에는 김두현과 신형민(포항)이 배치됐다. 대표팀은 후반 14분 목포시청 김정욱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하지만 후반 19분부터 1번 사이 김보경의 득점포가 불을 뿜으며 다시 리드를 잡았다. 김보경은 김두현이 찰려준 공을 아크 정면에서 헤딩으로 떨어뜨려놓고 페널티 지역 내 오른쪽에서 강한 오른발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1분 뒤에는 골 지역 왼쪽에서 원발슛으로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다.
김보경은 43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분하게 성공시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3피리어드에는 김보경-이승렬-이승현(부산)을 스리톱으로 배치한 4-3-3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줬다. 3피리어드 10분 목포시청 서석원의 헤딩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여전히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 /연합뉴스

2012 세계청소년야구대회 유치 나섰다

KBA, 국제연맹에 의사 전달

대한야구협회가 2012년 열릴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섰다.
강승규 대한야구협회(KBA) 회장 겸 아시아야구연맹(BFA) 회장은 2일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리카르도 프라카리 국제야구연맹(IBAF) 회장을 만나 이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유치 여부는 2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IBAF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야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고 작년부터 강 회장 이름으로 유치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해 무난하게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청소년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집행위원회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한국이 개최국으로 결정되며 내년 12월 IBAF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최근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2연패한 한국은 올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24회 대회에서 3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